

한전, 전력망 확충 주력...재생에너지 공급 개선되나

오늘 전력계통위원회 첫 회의 개최...전력설비 지연 해결 방안 모색 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난항에 전남 여유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지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전력망 확충'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송배전 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등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전국 송배전 건설 사업이 지역 내 시설물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민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8일 '제 1회 전력계통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배전 건설 사업 등의 전력망 설비 확충이 지연되는 등 전력설비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한전은 '제 10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56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6년까지 송전선로를 60%, 변전소는

40%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의 최우선 목표로 '재무 정상화'와 더불어 '전력망 확충'을 꼽았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한전은 전력망 확충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0여년간 동결했던 송배전 설비 인근 지역 지원금을 18.5% 인상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사 다짐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송배전 설비 건설 등 전력망 확충 사업들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발맞춰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등 여유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진행한 송전선로 확충 사업 등이 지역민들의 반대 및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지연되면서 전력 공급 계획이 틀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권 수준인 전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민의 반발로 인해 '영암군 154kV 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27개월, '보성군 154kV 득량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45개월 지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장성, 영광 등지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들도 각각 21개월, 8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송배전 시설 건설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기존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한전은 지난해 사내에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력계통위원회는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전력망을 적기·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력망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전력계통위원회는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전력계통위원회 첫 회의는 지난해 연말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환경개선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나주시가 새해 들어 빛가람혁신도시 주요 시설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블록 일제 정비, 수생식물 제거를 비롯해 호수공원 환경개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빛가람시립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초등생 대상 2월 11일까지

나주시빛가람시립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월 11일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빛가람시립도서관은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킹, 생대 놀이, 사자성어 학습, 독서토론 등 독서와 체험 활동을 결합한 4개 강좌를 운영한다.

우선 '어서와 이탈리아 빵은 처음이지?' 강좌는 6회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 전통 빵인 '판도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참여 학생들이 그림책을 통해 영감을 떠올리고, 판도르를 직접 만들면서 독서와 음식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대 놀이' 강좌는 초등학교 1~2학년 반과 3~4학년 반으로 구분해, 겨울 생대를 주제로 신체 놀이와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그림책이 전하는 사자성어'와 'BookTalk! 책 특! 독서토론' 강좌는 어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사자성어를 배우고, 독서토론도

겨울방학 프로그램

강의명	수강대상	일정
어서와 이탈리아 빵은 처음이지?	초등 1-4학년	2025. 1. 16. ~ 2. 7.(목, 금)
그림책이 전하는 사자성어	초등 1-2학년	2025. 1. 13. ~ 2. 11.(월, 화)
BookTalk! 책 특! 독서토론	초등 4-6학년	2025. 1. 8. ~ 2. 5.(수)
	초등 2-3학년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대놀이	초등 1-2학년	2025. 1. 10. ~ 2. 24.(금)
	초등 3-4학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강좌들은 나주시 시립도서관 회원인 경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을 통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강좌별 정원은 15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사학연금, 1800억원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15일까지 모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1800억원에 달하는 해외주식 위탁운용을 위한 해외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7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해외주식 위탁운용을 위한 해외운용사 선정 접수를 받는 다. 해외운용사 최종 선정은 오는 2~3월 중 이뤄

질 예정이다.

선정기관은 총 2개사로, 투자 금액은 각각 900억원으로 총 1800억원이다. 투자 방법은 사학연금에서 선정한 해외주식 자문운용사를 통해 역의 공모펀드로 진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파·폭설에 전력 수요량 급증 우려...전력거래소, 대응책 마련 고심

1월 둘째주 82.4~91.0GW 예상

이번 주 한파 및 폭설 등으로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1월 2주 주간 공급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력 공급량은 지난 3일 기준 109.4GW(기가와트), 전력 수요량은 80.5GW로 예비력 28.9GW 이상을 보유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유지됐다.

지난주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전반적으로 맑았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기록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 등 중부권에 폭설이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날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등까지 한파 및 폭설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1월 둘째 주(6~10일) 전력 수요량이 82.4~91.0GW로 예측했다. 지난주(74.7~80.5GW) 대비 7.7~10.5GW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전력 수요량 급증 현상은 한파 확대에 인헤터, 보일러 등 난방용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

로 예상된다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월 둘째 주 전력 공급량은 109.0~112.8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20.8~27.1GW로 예비율 22.9~32.3%를 기록해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공급·수요량 예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12명 선정

환경제어시설 등 내부시설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지원 대상으로 나주 소재 청년농업인 등 12명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18~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목표로, 한

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을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10년이지만, 1회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시설 이용 실태를 평가한 뒤 재임대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 나주, 경기 양평, 충북 보은·진천, 경북 경주·상주 등 7개 지구 12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1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6.30ha 규모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및 환경제어시설, 난방시설 등 내부시설을 지원했다.

지역별로 나주 동곡리 일대 1.14ha 면적에 2명이 선정돼 임대 가장 넓은 면적을 지원받았다. 이어 경주 안계리 일대(1.13ha·2명), 보은군 월송리 일대(1.01ha·2명), 상주 원흥리 일대(1.00ha·2명) 등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인 농지임대료는 농지은행 표준임대료의 50%, 시설임대료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시도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에 불과한 만큼,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초기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해 올해 선정된 청년농업인까지 총 34명이 지원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